

나주 5일가축시장터 매각 법정비화 조짐

나주축협 일부 부지 개인 매각 ... 남평 주민 원상회복 촉구 시위 부지 매입자, 준공 지연에 市 고발 속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도

나주시 남평 5일가축시장터의 매각을 놓고 쫓붙시위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지 소유자의 고발장 접수까지 겹치면서 법정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주말마다 열리는 남평주민 쫓붙시위가 4주째 이어지고 있다. 남평주민의 쫓붙집회는 지난해 12월 나주축협이 나주축협 명의로 된 남평 5일시장 부지 일부를 개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해당 부지를 매입한 개인은 현재 매입 부지 중 일부에 카센터 건물을 신축하고 나주시에 준공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남평읍지역발전협의회(회장 최영주)는 지난 4월 13일 남평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기관·사회 단체장 대책회의를 열고 나주축협을 상대로 개인에게 매각한 부지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해당부지가 나주축협 소유이긴 하지만, 행정관리 부지로 공공용지라고 할 수 있는데 경솔하게 매각했다”면서 “나주시도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행정소송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준공을 불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지 매입자는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축시장터 일부 부지를 매입한 김모씨

는 “협상을 하자며 공사 중단은 4번이나 요구해 모두 들어줬고 매입한 땅 절반 이상을 바로 옆 부지와 바꾸자고 해 그렇게도 하자고 했다”면서 “땅을 모두 가져가든지 대토를 해주든지 손해만 없게 달라고 했는데 무조건 양보만 하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달 말까지 현재 운영중인 가게(카센터)를 비워줘야 하는데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시에 압력을 가해 이미 신축한 건물이 준공허가조차 안 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일 나주시를 상대로 직무유기혐의 등으로 나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집회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협의회에서 법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개인재산권을 침

해해 자칫 동네 이미지마저 손상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남평읍에 사는 이모씨는 “협의회가 시장활성화를 내세우는데 정작 남평 5일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시장입구에 대형 정화시설을 이전하는 것”이라며 “협오시설로 냄새가 심하고 시장입구 한 중앙에 있어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시 관련부서도 남평 쫓붙집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공공용지나 행정관리부지도 아니고,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데도 민원 때문에 한 달이 넘도록 준공허가를 못 내주고 있다”면서 “이달말까지는 준공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기자 ykson@kwangju.co.kr



日 유망기업 20개사, 광양만권 현장 시찰

세종산단내 투자 유치 활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지역 일본기업 중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유망기업 20여 개사가 산업시찰단을 구성해 28일부터 30일까지 광양만권 현장시찰을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광양만권 산업시찰단으로 참가한 일본기업인들은 현재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세종산단내 외국인투자단지인 광양항 및 울진자유무역지역은 물론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화학 및

철강산업 등 광양만권 산업인프라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특히 이번 시찰단에 참가한 일본기업은 테마파크 놀이기구, 식품공장 기자재, 바이오 의료기기 및 가능성 합성수지 제조업체들로 경제자유구역 내 세종산단의 외국인투자단지 등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권오봉 청장은 “한·일 기업 간 매칭으로 일본기업은 위험부담을 줄이며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고, 한국기업은 기술 개발과 판로 확대에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해남군 옥천면 백호리 김성용씨가 멜론 수확을 하고있다.

해남 멜론 수확 한창

농가 15곳서 45t 생산

맛깔 해남의 건강을 기운을 가득 담은 멜론 수확이 한창이다.

올해 처음으로 재배를 시작한 해남 멜론은 옥천면 일대 15농가, 2ha의 면적에서 45톤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남 멜론은 풍부한 일조량과 풍부한 영양성분의 황토흙에서 재배돼 16브릭스 이상의 높은 당도를 가지고 있다.

해남 멜론은 ‘해남향기론 멜론’ 브랜드로 8kg 한상자에 2만 5000원씩 소비자 직거래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멜론은 베타카로틴, 비타민 C, 포타슘이 많아 항산화에 효능이 있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해남=박희식기자 dia@

고창군, 전입자에 타 지역 종량제 봉투 허가 광양시, 위험도로 개선 공사 착수

고창군은 “7월 1일부터 타 지자체에서 고창군으로 이사 오는 전입세대에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고창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 봉투는 사용이 불가능해 전입자들이 이사 전 지자체에서 환불하고 전입한 주소지에서 봉투를 새로 구매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고창군은 전입신고 시 다른 지자체 종량제 봉투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량제 봉

투 부착용 전입세대 인증 스티커를 발급하고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입세대 인증 스티커는 전입신고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 세대 당 20매 이내로 교부받을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인증 스티커 부착은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생활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전입세대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기자 phj@

노후교량 철거 등 42억원 투입

광양시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양을 목석의 우수장사거리~광양 IC 국도 2호선 구간 위험도로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 순천국도관리사무소에서는 국비 42억원을 투자해 광양육교(현재교) 철거와 중단구배(기울기)를 조정한다.

중단구배 공사는 심한 경사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협해 온 우시장 사거리에서

광양IC 구간 320m의 중단 경사를 5.3%에서 3.2%로 개량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한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세부선형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8월께 한국도로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2018년부터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광양육교(현재교)는 1987년도에 건설된 노후 교량으로,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한 경전선 복선화 사업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순창군 “관절 통증 치유법 알려 드려요”

건강장수연구소 수강생 모집

순창군이 자체 불균형에 따른 각종 질환을 치유하는 ‘정위치유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정위치유는 건강장수연구소 힐링교육센터에서 7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된다.

정위치유란 척관절 균형운동과 바른 자세 훈련을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

유프로그램으로, 비틀어진 자세로 생길 수 있는 만성통증을 척관절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치유 요법이다. 혈액순환장애, 눈침점, 오십견, 석회성건염, 허리외골반통증 등의 질환을 원광대학교 한의과 안성훈 교수팀이 참여해 진행한다.

참가비는 12만원이며 자세한 문의와 접수는 건강장수연구소(063-650-1532)로 하면 된다. /순창=정양근기자 jyg@

세일글

“현장중심 치안 ... 안전한 강진 만들 것”

이 혁 강진경찰서장



“현장중심의 치안활동으로 ‘안전한 강진,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26일 취임한 이혁(54·사진) 신임 강진경찰서장은 “기본과 원칙이 존중되는 치안환경 조성하고 소통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특히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군과 협력해 찾아드는 관광객 안전 등 다

각을 ‘정자축제’를 대비해 교통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출신인 이혁 서장은 간부후보(42기)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 광진서 형사과장, 강원청 수사1과장, 광주청 경비교통과장 등을 역임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 · 전원주택지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896㎡ 전량중음 2억2백
- 금대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3548㎡ 은행 1억3천 매도 3억7천
-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1877㎡ 요양주택·사할도 적합 6천만원
- 남평읍 우산리 대지 774㎡ 광주에서 15분거리 6500만원
-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땅 32454㎡ 팬션과 농장적합 5억

주택 · 원룸 · 아파트

- 월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2동 2억3천
- 월산동 2층 상가 주택 대지 133㎡ 건평 143㎡ 1억4천
- 월산동 고급주택 농성초교부근 대지 352㎡ 주택168㎡ 5억2천
- 월산동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126㎡ 2층주택 1억6백
- 월산동 원룸 중 3층 23㎡ 독립생활적합 2100만원

투자 · 매도 · 교환

- 전원주택 개발할곳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임야 14479㎡ 2억천
- 담양군 봉산면 대지 10692㎡ 아파트·창고 적합 매도 12억5천
- 요양병원적합 담양군 대덕면 잡종지 8451㎡ 도로여건 좋음 7억
- 독립섬 56233㎡ 신안군 임태면 새천년대교 인근 3억5천
- 월산동 보라리파트부근 1층 65㎡ 식당·사무실용 6천만원
- 충장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상가건물

- 월산동 대지 160㎡ 건물 419㎡ 4층임 전세3천 월3000선 5억7천
- 월산4동 새마을금고부근 2층식당건물 대지 226㎡ 매도 4억2천
- 월산동 농성초교근처 6세대 대지 206㎡ 건평 328㎡ 3억6천

감정가 이하

- 남구 송하동 산 22556㎡ 감정 2억5천선 율령 3천 매도 1억천
- 담보용 고흥군 상업지 254㎡ 공사가 3억5200 은행 2억4천 매도 2천
- 유통 좋은 모텔 대지 422㎡ 건평 984㎡ 감정12억선 교환가능 8억
- 해남군 신안면 식품공장 등 적합 17344㎡ 감정 24억선 매도 12억
- 무안군 일로읍 죽산리 4137㎡ 감정 2억5200 은행 1억7600 매도 800
- 무안군 삼향읍 용포리 1969㎡ 투자에 좋음 7200만원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망좋음
- 신안다리 바로 옆, 내부깨끗
- 시세 -1억 2천만원
- 매매 -9천 9백만원, 즉시 입주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금호동 6층 건물(보증금 2.4억 월1,500만) 매 36억원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축석동 5층 건물(보증금 3.4억 월1,500만) 40억원
- 하남동 3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 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460만) 매 25억
- 쌍암동 4층 건물(보증금 1.3억 월 1,400만) 매 29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450만) 매 35억
- 신가동 4층 건물(보증금 6천만 월 520만) 매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토 지

- 용천동 생산녹지, 대로접 9,400㎡ 매 48억원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도로접 990㎡ 5억원
- 광산구 내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45억 (물류창고, 아적장 적합)
- 광산구 내산동 임야 36,000㎡ 매 3억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답 3426㎡ 4억2천만원 (가든식당 적합)
- 장성군 삼서면 흥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농음, 남향)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3천
- 담양군 월산면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16억원
- 담양군 남면 학성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정덕동 롯데마트 부근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팅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